

충성

고린도전서 4:1-2

최정웅 목사님

성도들이 '내게는 아무 문제 없다. 주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니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게 된다.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약속 받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주체대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직분 따라서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슨 일을 맡아도 상관없다. 사실 우리 생애 자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제직원이 된 분들은 결론이 난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체만 드러도 그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세 단어만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나는 일꾼이라는 단어다.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셋째는 충성이다.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할 수 있지만,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모셔서 가르쳐서 하게 하고 겁박해서 순종하게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여러분의 목사와 여러분은 참사랑교회의 교인인데, 가르칠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으면 직접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38년 동안 한 번도 부흥강사를 불러서 여러분에게 공감을 친 적이 없다. 앞으로 그 그럴 것이다. 자원해서 해야 한다. 그게 진짜 봉사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언젠가 관선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 "오늘은 내가 점심을 살게."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교회가 좁아서 넓히도록 헌금을 했는데, 한 번에 금액이 다 나왔어." "에이,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대수인가요?" "아니야. 오래 하면 두 배 나오겠지. 그러나 정식으로 기도하고 광고했던 그 날에 나온 것이 진짜 믿음이야.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강남에서 처음으로 사브사브를 먹어 보았다. (웃음) 정말 많은 헌금이 모여서, 그 남은 금액으로 광양 신도시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서 세워주었던 것이다.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체면 때문에 한 것이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다. 교회가 결정하고 기도하고 한 것에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번에 예원교회가 입당을 했는데, 분당이 4층이다. 꼭 오페라하우스에 온 느낌이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음향만 해도 10 몇 억이 들었는데, 다 장로님들이 했다고 한다. 건축의 마지막을 마친 것도 교회 장로님들이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잘 했어. 고장나고 물 새고 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나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이 너무 귀했다. 특히 가난한 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눈물겨운 헌금으로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건축위원장은, 건물이 완성되고 나니까 교회를 떠났다. 자기 집이 부산인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산의 교회로 옮겨갔다. 정말 교우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고 있구나 싶었다.

1. 일꾼

1절에 '일꾼'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다.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한다. 그 말은 '노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노예선 제일 밑바닥에서, 쇠고랑을 차고서 평생 노란 짓다가 죽는 사람이 휘페레테스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없다. 주인이 하라면 하고 쉬라면 쉰다.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다. 그게 일꾼이다. '집사'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탈곡기가 있지 않나? 탈다 보면 밀에 쌓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수건을 뒤집어쓰고 큰 갈퀴로 그 탈곡기 아래에서 튀는 것을 깎아낸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이다. 노 젓는 종이 일꾼이고,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본문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알아 달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 젓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달라는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처음 온 분과 나중에 온 분 사이에 같듯이 있었던 모양이다. 목사가 바뀌면서 원로목사님께 충성하던 사람과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같듯이 생긴다.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물러가라,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싸우다가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할 일이 아니다. 고린도교회에서부터 이미 있었던 일들이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말한다. "누구든지 우리를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봐야 한다. 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누가 먼저 되고 나중에 되고, 누가 잘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한다. 무슨 일을 맡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생각해야 한다. 나는 기쁘다. 예배당을 지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누구를 세워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할 때 기준이 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교의 슬로건은 예정론 같은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 영광'이다. 개인은 상관없다. 그게 일꾼이다. 이번엔 일을 맡은 분들은 누가 귀하고 덜 귀하다 하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자기 맡은 일만 하면 된다. 수습 이야기를 다 알지 않나. 카네기 회사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회사가 깨트렸었다. 이 사람이 한 시간 전에 출근해서 한 시간 후에 퇴근한 것이다. 30분 동안 먼저 혼자 예배를 드리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손뭉칠 곳이 없도록 만들었다. 질서가 다 세워지도록 만들었다.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1년 정도 두고 보니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카네기가 수습을 자기 비서로 데리고 갔다. 근거리에서 회장을 도왔는데, 카네기가 회장 직에서 은퇴하면서 수습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회장 자리를 자네가 맡아 주게." "제가 모든 말씀에 다 순종했지만,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제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은 자네가 불러서 쓰면 된다. 그러나 당신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당신이 해야 하지 않느냐." 억지로 시켰다. 그래서 차기 회장이 된 것이다. 어떤 분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서울로 올라왔다. 갈 데가 없으니 매일 와서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기도했다. 이분이 틈만 나면 와서 기도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깨끗하게 세워 버렸다. 그렇게 하던 사람 중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시해서 봤다. 그런데 이분이 진심인 것 같았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에게 기도실 옆에 있는 작은 방을 주었다. 이분이 교회에 살면서 교회 안팎을 깨끗하게 하니, 교회 관리인까지 되었다. 장로님들이 너무 고맙다 해서 집도 마련해 주고, 시골에 있는 가족들을 다 불러들여서 대학 공부까지 하게 해 주었다. 다 자기 할 뜻이다. 무엇을 내가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맡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칭찬 한 마디 듣지 않는데도, 교회 일을 충성스럽게 해내는 분들이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분들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일꾼이다. 군인들이 만나면 '충성!' 하지 않나? 이 말은 대단한 말이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말이다. 그 일을 위해서 군인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래봐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나는 참사랑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교사요 찬양대원이다.' 이렇게 마음을 담고 충성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님이 하신다. 내가 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보고 은혜를 보게 된다. 그래서 안다옥교회에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 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참사랑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교회다. 나는 어릴 때 백부님이 교회를 짓는 것을 보았다. 혼자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짓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도와주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유리창이 없었다. 창을 천으로 막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어린 아이들이 가서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자기 이름도 쓰고 교회이름도 쓰고 그랬다. 그런 것을 두고 백부님이 아무만지고 기도하던 모습이, 6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 교회 구석구석을 돌면서 정리하고, 치우고, 아무만졌다. 자신이 직접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교회의 경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한 번도 와서 보고 기도하고 한 적이 없던 분들이었다. 제2성전 예배당을 지을 때 주중에 내내 공사를 돌봤다. 그러다가 토요일 저녁이 되어서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서 교회 봉고치를 몰고 광주기도원에 올라갔다. 교회에서 해도 되는데 또 그때는 산에 가서 해야 영감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니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성경과 노트를 들고 기도원에 올라갔다. 그런데 얼마나 피곤한가. 성경을 펴고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버린다. 황급히 눈을 떠 보면 밤 12시다. 그러면 또 주일 새벽기도부터 인도해야 하지 않나. 돌아오면서 또 무엇을 전해야 하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민했다. 그러면서 내려왔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생을 걸던 모습을 교회 안의 분들이 다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 다락방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나를 쫓아내거나 그러지 못했다. "목사님, 떠나야 한다면 우리가 떠나야지, 왜 당신이 떠나실니까." 조용히 떠나갔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남산교회, 여전도회로 세워지고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 나는 일꾼이다 하고 보면, 교회 구석구석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 이 강대상은 백순덕 권사님이, 저 피아노는 우리 교인도 아닌 나형님 권사님이 헌물하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백 권사님이 그 노령에 무슨 돈이 있었겠나. 나이 60 넘어서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헌물을 한 것이다. 여기에 내 마음, 내 눈이 있구나 생각해야 한다. 백 권사님은 이제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나는 그때의 그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 일꾼은 그리스도의 노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생각을 잊지 마라.

2.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두 번째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맡은 자’라는 뜻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을 쓰는데, 관리자라는 뜻이다.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재산을 관리해서 살림을 차리고 주인이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다. 종이라는 것은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26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2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맡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것을 선전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그리스도 대신에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예수를 맡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 장로님이 활동하는 것을 아이들이 본다. 아이들에게 짜장면 한 번도 안 사준 장로님은 회개해야 한다. (웃음) 정은주 목사님은 집사, 장로, 청년회장을 다 해 본 사람이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교회인데, 지금도 정은주 장로님을 전설적인 인물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다. 이 사람은 무슨 부서를 맡든지 자기 전부를 걸었다. 몇 배로 부흥이 되고 나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만 명 모이는 큰 교회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앞에서 누가 뭐 이야기를 하면 ‘그 것도 못 하느냐’ 한다. 그게 가능한 것이다. 이분 동생이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자기 재산을 다 내놓았다. 그래서 교회를 완성시켰다. 그래서 그분이 망했는가? 아니지 않나. 이분이 증직자 행사를 하는데 18억 원을 드렸다고 한다. 십일조를 그렇게 드렸다고 한다. 일하는 그릇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다.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인데, 이분들은 그렇게 한다. 나는 금년에 5500만 원을 헌금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올 인 했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렇게 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망하게 두시겠는가.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집을 팔아서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한 국교회는 그렇게 했기에 부흥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분들은 없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 아닌가.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멸시받을 수도 있고 영광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에는 서천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전남 장성에 있는 돌산을 사서, 돌을 쌓아서 지은 교회다. 이 교회를 정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것이다. 이분은 한약사였는데, 희한하게도 아픈 사람들이 이분의 약만 먹으면 나았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쌓인 것이다. 이것을 포대로 쌓아서 건축헌금으로 다 드렸다.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분이 대단한 것이, “혹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 같다면, 1년 안에 하나님이 불러가 주십시오.” 정말 건축 후에 1년 만에 천국으로 갔다. 우리는 기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손과 기적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이 하느님으로 주님이 보신다. 여러분이 쟁그리면 주님이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행복해하면 주님이 행복해하신다.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제대로 못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청년들이 그렇다. ‘정말 제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양심대로 해야 되겠다.’ 그것을 두고 성령충만을 구하라. 지금 1억 원 이상 한 사람이 15명 뿐이다. 어떤 분은 6억을 했고, 어떤 분은 4억을 했고, 어떤 분은 2억을 했다. 어떤 분은 100만 원만 더 하면 1억 원까지 간다. 그러면 그것만 했다고 믿을 있다고 할 수 있나 하는데,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의 더 있다고 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승리하시기 바란다.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3. 충성

오직 한 가지 목적은, 그리스도께 충성하려는 것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뿐이다.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언어 구사 능력이 있거나 좋은 사람이거나 멋지거나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충성만을 요구했다. 굉장한 학교를 나와야 충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학벌도 지역도 요구하지 않았다. 성공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내 종이라면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말의 ‘충’은 가운데 충, 마음 심을 합한 것이다. 중심을 드리는 것이 충성이다. 누가 알아주는 것이 상관없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만을 원하신다. 행정이, 상담가, 사교적인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충성만을 요구하신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아야 한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삶으로 체험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충성만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지 않거나 감추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누어야 하고, 드러내야 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손이 되고, 마음이 되어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것이 충성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메시지로 대체해서도 안 된다. 혼합시켜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 체색을 하면 안 된다. 혼합주의가 되면 다른 것이 전달된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지 않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전하면 안 된다. 충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메시지와 혼합하거나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부르심에만 충성하면 된다. 매진하면 된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무엇을 맡겼든지 상관없이 없을 것이다. ‘왜 나를 이렇게 맡기지?’ 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 주간 기도했다. 목회를 하려면 전체를 알아야 한다. 무엇을 맡겼는지 그 일에 충성하면 된다. 그게 류광수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했던 일 아닌가. 갈라디아서 1:6-9을 보자.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이다.” 다른 것 기대할 것이 없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 시민으로 만드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어렵고 두려운가. 정말 요셉처럼 해 보았는가. 정말 예수님처럼 해 보았는가. 너무 충성된 사람이 없다.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사람이 없다. 골로새서 1:25을 보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4을 보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임명받은 직분을 생명처럼 지켜 가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완처럼 축복하실지 누가 알겠는가. 여러분, 진짜 마음 담아서 해 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게 된다. 베드로전서 4:10을 보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 것은 하나 뿐이다. 충성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된다. 여호수아 1:5을 보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도 가고,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 그리스도, 1:3 하나님 나라, 1:8 오직 성령. 이것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호소하고 기도하라. 3개월 만 앞뒤로 기도해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방향을 주실 것이다. 나도 그랬다. 군을 제대했는데 할 일이 없었다. 26살 청년이 할 일이 없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길을 열어주세요.” 직장을 갖는데 주일에 쉬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다. “목사님, 직장을 구해 보니까 주일에 노는 곳이 없습니다. 리어카 장사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은 너무 창피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최 선생, 목사 된다면서, 리어카도 못 끄는 사람이 십자가는 어떻게 질 수 있겠어.”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다. 리어카를 끌고 목포 시내를 하루에 세 번 돌았다. 가마니 장사를 했는데, 젊은 놈이 왜 할 것이 없어서 노인 할 일을 내가 다 하느냐 하면서 욕을 듣기도 했다. 동생이 편지를 써 보냈는데, “가마니 삼시다. 조용히 삼시다.” (웃음) 딱 두 달 했는데, 길에서 목사님과 마주쳤다. 손을 잡고 이야기했다. “최 선생, 이제 됐어. 이제 학교 가게. 내가 다 대 줄게.” 정작 돈은 안 대주시더라. (웃음) 그래도 이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3일은 굶고 3일은 안 먹으면서 공부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다. 기도해 보라. 뭐 할 일이 없나. 왜 길이 없나. 예수님을 알고부터 갈 길이 보이고 할 일도 알게 된 것이다. 합당한 일이 있다.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것이다. 배정이 없는가?년부터 가문을 만들면 되지 않나. 믿음의 가문, 중직자의 가문을 세우면 되지 않나.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가문을 만들면 되지 않나.년부터 시작하면 된다.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면, 내가 딱 거절하고 나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된다. 일곱 램프와 같이, 우리 중직자 중에서 모델이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그 일을 위해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어엿이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청지기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정복하는 사람들, 주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문제 해결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